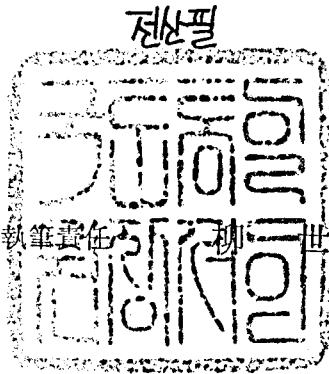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環境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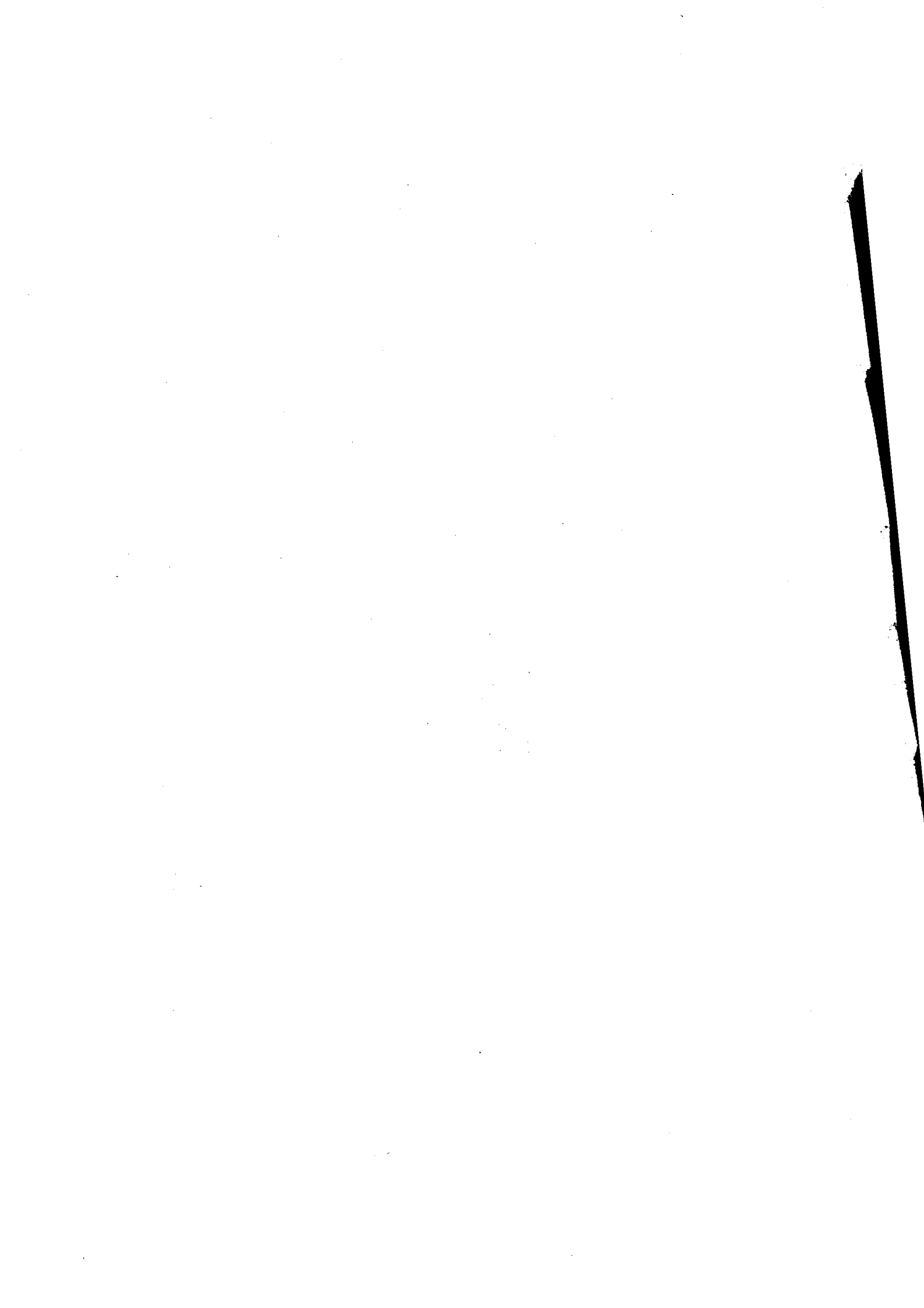
美·中共關係의 展望과 韓半島問題에 미치는 影響



研究執筆責任 柳世熙 (漢陽大學校 政治學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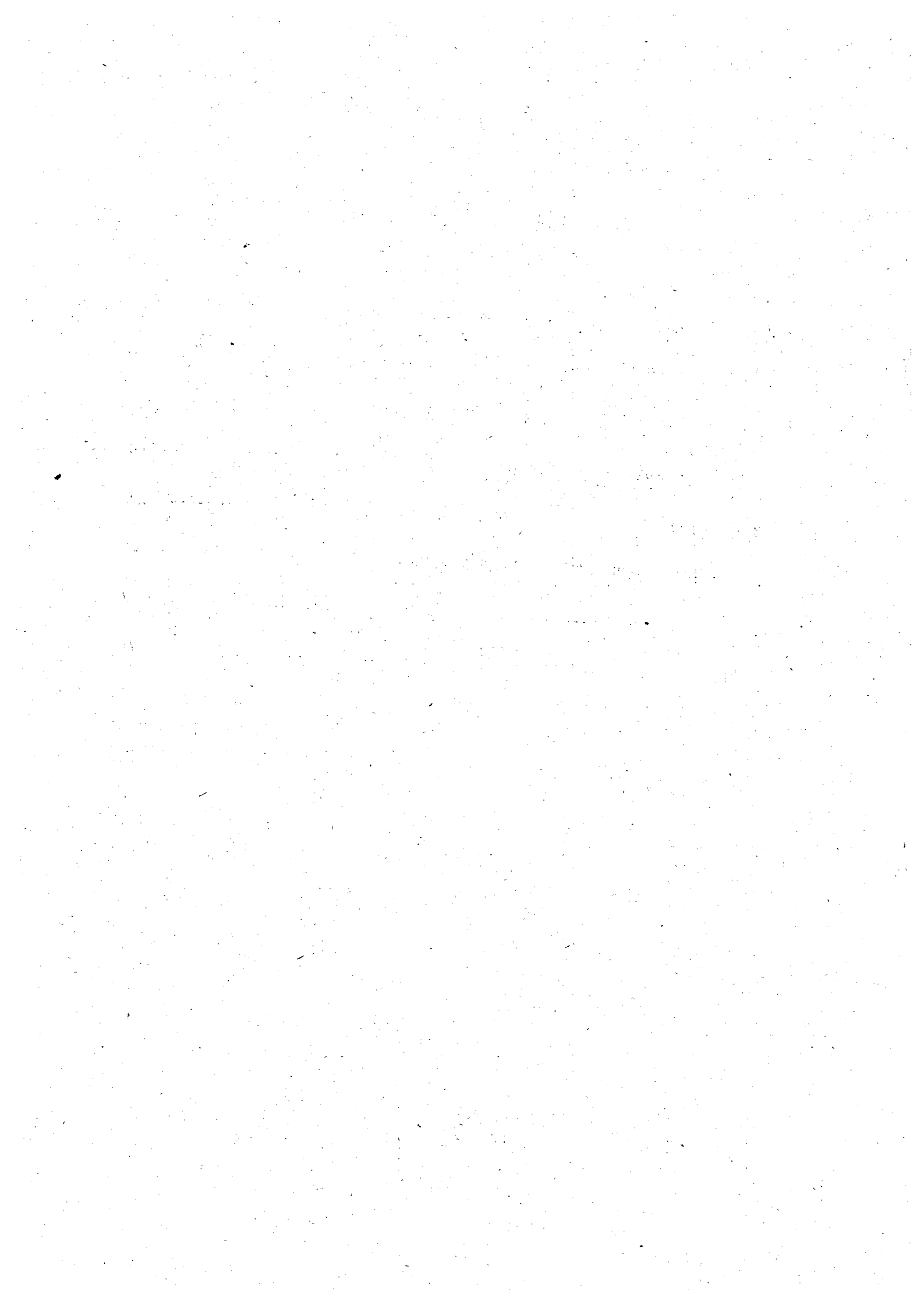
刊行責任 鄭大圭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一. 序 論	3
二. 美・中共關係의 展望	8
1) 美・中共關係의 改善을 推進할 要因	8
2) 美・中共關係의 改善을 抑制할 要因	18
3) 兩要因들의 比較에 의한 美・中共關係 展望	25
三. 美・中共關係의 進展이 韓半島問題에 미치는 影響	32
四. 結 論	37
註	40



一. 序 論

本稿의 目的은 美·中共間의 關係가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展望하고 이와같은 兩國의 關係進展이 韓半島의 情勢에 어떠한 影響을 줄 수 있는가를 考察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의 對策樹立에 參考가 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本稿는 第2章에서 美·中共關係가 앞으로 어떻게 進展될 것인가를 主로 美·中共關係改善을 推進할 要因과 抑制할 要因들을 分析 比較함으로써 檢討하고 第3章에서는 2章에서 豫測한 美·中共關係展望을 土臺로 그것이 韓半島問題에 미칠 影響을 檢討한 뒤 第4章에서 結論으로서 要旨을 다시 綜合하고 對策을 提示하고 져 한다.

그러나 本稿는 다음과 같은 理由로해서 지극히 皮상적인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美·中共關係는 筆者가 다른 論文에서는 指摘한 바와 같이 實際에 있어서는 兩者間의 關係라기 보다는 美·中·蘇의 三者關係의 一環이기 때문에^① 여기에 介在하는 變數들이 너무나 많다는 點

둘째, 美·中共接近에 있어서 兩者의 意圖는 基本的으로 戰略的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 變數들은 매우 流動的이라는 點

세째, 研究資料 및 情報의 制限性 때문에 이들 變數들의 測定 및 相互比較가 전혀 不可能하거나 커다란 制約을 받고 있다는 點 등이다.

따라서 本研究은 多分히 直觀적이고 느낌에 依存하는, 이른바 科学性과는 거리가 먼 方法에 依存하게 될 것이고 잘 해야 方便的인 智慧 (conventional wisdom) 의 번두리에 멈추는 것이 될것이다.

한편 本稿가 의도하는 豫測은 향후 5年程度에만 해당되는 比較的 短期的인 것이다. 여기서 5年間을 問題삼는 理由는 방금 위에서 指摘하였다시피 美·中共關係에 作用하는 變數들의 流動性때문에 長期的인 豫測은 우리의 關心이 되고 있는 中範圍的 戰略 (middle-range strategy) 樹立에 잘 맞지 않을 可能性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期間은 또한 美國이 推進하려하고 있는 駐韓美軍의 撤収 期間과도 一置하기 때문이다.

향후 5年間に 있어서 美·中共關係의 展開를 展望하는데는 現在 美·中共關係改善에 揭載되어 있는 여러 要因들의 分析이 必要하겠지만 이에 앞서서 美·中共關係의 本質부터 규명하여야 될 것이다. 美·中共關係의 本質은 앞서서도 指摘하였다시피 美·中·蘇의 三者關係라 할 程度로 蘇聯을 베제하고는 說明이 안되는 關係이며, 이들 三者關

係는 서로가 敵이라는 点에서 더욱 複雜性을 띠우게 되는 것이다. 即, 서로가 敵인 三者는 各己 두 敵들에 대하여 兩面作戰을 써서 適当히 牽制함으로써 自己의 利益을 最大化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三角敵對關係는 各者의 行動樣式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特徵을 나타내게 된다.

- 1) 한 나라에 대해서 모두 敵인 두 나라는 보다 敵對的인 第1의 敵과 덜 敵對的인 第2의 敵으로 나뉜다.
- 2) 各者는 두 개의 敵이 서로 接近하거나 野合하는것을 願치 않는다.
- 3) 各者는 第1의 敵을 우선 牽制하기 위하여 第2의 敵에 接近하는 傾向을 나타낸다.
- 4) 各者는 敵들에 대하여 第1의 敵으로 認定되는것을 꺼린다.
- 5) 各者는 두개의 敵이 팽팽히 맞설때 가장 敵들에 대하여 兩面作戰을 활발히 할수 있는 行動의 自由를 갖게된다.
- 6) 各者는 하나의 敵과 흥정 또는 牽制하기 위하여 다른 敵에 接近한다. ②

以上과 같은 特徵으로 볼때 美國의 中共에 대한 政策은 美·中共關係가 美·蘇關係에 미칠 影響 그리고 中·蘇關係에 미칠 影響을 考慮하지 않고는 樹立될 수 없는 것이며 이 점은 中共의 美

國에 대한 政策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結局 美·中共關係는 蘇聯의 對中共·對美政策에 影響을 주며 그것은 또한 그것에 의하여 變更된 蘇聯의 對中共 對美政策에 의하여 影響을 받게 된다. 이와같은 三者間的 相互交互作用 (interaction) 이라는 脈絡속에서 各者는 自己의 利益을 最大化하는 方案을 模索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것은 各者가 추구하는 國家利益 (national interest)의 現時點에 있어서의 內容은 무엇이며 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이다. 各者가 추구하는 目標에 대한 目錄 (list)은 細分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것이 될수도 있으나 그동안에 確認된 比較的 具體的이며 重要한 것들은 다음 章에서 美·中共關係改善을 추진하는 要因과 이를 抑制하는 要因들에 관한 討論에서 言及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至極히 巨視的인 面에서만 보기로 한다.

한 나라의 對外政策이 추구하는 目標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은 1) 自國의 安保維持 2) 經濟力의 增大 3) 自國文化 및 價值觀의 傳播 그리고 4) 어느정도 達成된 이상의 세가지를 繼續 維持하기 위한 能力 다시말해서 自國의 影響力의 繼續的인 擴大等의 네가지이다. 以上の 네가지 中 네번째의 目標는 主로 超強大國들이 추구하는 目標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一般的으로는 앞의 세가지가

對外政策目標가 된다.

한편 이와같은 對外政策의 目標은 그 比重에 있어서도 1) 安保
2) 經濟 3) 文化 및 價值觀의 傳播라는 順位를 나타내게 된다.
다만 한 나라가 現在 얼마만큼 安保와 經濟問題를 解決하였느냐의
程度에 따라 行動樣式의 內容上의 差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安保라는 面에서 蘇聯의 膨脹에 대하여 美國과 中共은 다
같이 危脅을 느끼고 있지만 그 느끼는 程度에 있어서 中共은 美
國보다 더욱 크며 이와같은 差異는 美·中共關係에 있어서 各者
상이한 行動樣式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二. 美·中共關係의 展望

앞으로 5年間の 美·中共關係를 展望하기 위해서는 美·中共關係의 改善를 推進할 要因들과 이를 抑制할 要因들을 살펴보고 이들 兩要因들의 比重을 比較해야만 한다. 그리고나서 美·中共關係가 具體적으로 어떠한 樣相으로 展開될 것인가라는 豫測이 可能할 것이다. 다만 美國과 中共은 各者가 처해진 環境과 立場 그리고 能力의 差異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추구하는 利害關係도 반드시 一致하지 않기때문에 美·中共關係의 改善를 추진할 要因과 抑制할 要因들에 있어서 일단 美國側 要因과 中共側要因을 分離하여 考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關係改善이란 兩國間의 大使館設置에 의한 國交樹立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 國交正常化는 아니더라도 兩國間의 接觸과 交流가 現在보다 더욱 頻繁해지고 友互적으로 되는것을 包含한다.

1) 美·中共關係의 改善를 推進할 要因

美國側要因

(가) 對蘇牽制의 必要性

美國으로 하여금 中共과 關係改善을 推進하도록 만든 가장 큰 要因은 蘇聯에 대한 牽制의 必要性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中共과 關係改善을 함으로써 美國은 軍事的으로 繼續 膨脹하고 있는 蘇聯에 대하여 東亞細亞에 있어서 힘의 均衡을 보다 더 容易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即 近來에 있어서 極東 및 東南亞海峽에서의 蘇聯의 極東艦隊의 활발한 示威가 보여주듯이 蘇聯은 軍事力을 과시함으로써 이 地域國家들에 대하여 心理的 影響力을 行使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東南亞地域에 있어서 蘇聯이 中共을 포위하는 것으로서 中共으로 하여금 危脅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지만 從來까지 이 地域에 있어서 적어도 海上에 있어서는 支配的인 位置를 維持해온 美國의 힘에 대한 도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中共과 關係를 改善함으로써 美國은 中蘇國境線으로 中共으로 하여금 蘇聯을 오히려 封鎖하는 效果를 얻게 될 것이다.

過去의 兩極體制에와는 달리 앞으로의 國際政治에 있어서 美·蘇 超強大國의 影響力은 相對的으로 減退될것임은 分明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당한 期間동안 이들 두나라는 國際政治에 있어서 여전히

中心的 役割을 할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편,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軍事力이 갖는 比重도 軍事力以外的 要素, 例컨데 에너지問題, 南北問題, 食糧問題, 自然環境의 汚染問題等으로 因하여 相對的으로 減少하겠지만 當分간은 여전히 國際政治의 內容을 決定하는 核心的 要素로서 存在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軍事力에 基礎를 둔 勢力均衡 (balance of power) 은 적어도 앞으로 상당한 期間동안 여전히 國際政治에 크게 作用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美·蘇間의 軍備競争은 아이로닉 하지도 兩者間에 軍備制限會談을 繼續하면서도 繼續될 것이며, 亞細亞에 있어서 蘇聯과의 勢力均衡에 所要되는 費用을 切減하기 위해서도 美國으로서는 中共과 關係改善을 해야 될 必要를 느끼는 것이다.

中共과의 關係改善에 의한 亞細亞地域에서의 蘇聯에 對한 共同牽制라는 것은 蘇聯의 軍事力으로부터의 西歐의 保護라는 點에서도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傳統的으로 美國은 世界戰略에 있어서 亞細亞地域보다는 西歐유럽에 一次的인 關心과 比重을 두어 왔으며 이와같은 美國의 態度는 앞으로도 變함이 없을것이 分明하다. ③ 따라서 亞細亞에서 中共으로 하여금 繼續 蘇聯과 對峙하도록 만듦으로써 歐羅巴에 對한 蘇聯의 膨脹을 抑制하는 效果를 美國으로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實際로 中·蘇對立으

로 말미암아 中·蘇国境線에 配置된 蘇聯軍의 兵力數는 바르샤바條約軍에 派遣되 兵力數보다 월등히 많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中共에 接近함으로써 美國은 SALT問題等の 懸案문제와 關聯하여 對蘇協商力을 強化할수 있는 것이다. 實際로 이와 같은 解釈은 1977年4月 第2段階 SALT交渉과 漁勞問題가 잘 타결되지 않자 이에대한 對蘇對策으로 美國은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를 本格的으로 推進하려 하고 있다고 美言論에서 公同연히 報道한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⑤ 또한 1972年5月 모스크바에서의 美·蘇頂上會談에 의하여 第一段階 SALT의 締結을 이룩하게된 背後要因中 가장 큰 要因은 아무래도 닉슨의 中共訪問에 의한 美·中共關係의 改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中共의 市場性

위의 要因이 軍事的인 要因인데 반하여 中共의 市場性은 美國이 對中共接近을 考慮토록 만드는 主要 經濟的 要因이 되겠다.

9億의 人口와 産業의 未發達에 따른 中共經濟의 落後性은 境遇에 따라서는 中共이 美國의 하나의 커다란 商品市場 乃至 原料供給地의 役割을 할수 있다는 잠재성을 美國으로서는 考慮케되는것이 당

연한 것이다. 닉슨 行政府가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하는데 있어서 그 背後에서 美國의 經濟界가 作用의 一環을 担当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특히 毛沢東死亡後 現在의 華国鋒体制은 經濟의 近代化를 主要目標로 내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西歐陣營과의 經濟技術協力을 不可避 이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美·中共間의 經濟交流의 擴大可能性은 전보다 훨씬 커졌다. 實際로 美國은 온건·實用主義的 色彩가 짙은 現在의 中共指導部에 대하여 이점과 關聯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듯 하다.

한편 中共의 現執權勢力으로서는 現体制에 대한 大衆들로 부터의 支持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物質的誘因 (例컨데, 賃金引上과 새롭고도 보다 나은 消費財의 供給)을 必要로 하고 있다.

다만 뒤의 關係改善을 抑制하는 要因들의 分析에서 指敵하겠지만 中共의 經濟体制과 構造가 徹底한 計劃經濟와 自給自足 (autarky)에 基礎하고 있다는 點에 問題는 있다. 그러나 당장에는 별 効果가 없다고 하더라도 長期的인 面에서 보더라도 美國으로서는 中共과의 經濟交流의 擴大에서 얻을 수 있는 利得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實際로 中共과의 交易을 擴大하기 위해서 中共에 대하여 最惠國待遇를 해야된다는 主張은 닉슨의 中共訪問 直後부터 美國

内 一部에서 繼續되어 오고 있는 実情이다. ⑥

(나) 国内政治

美国의 越南戰介入 以後 1960年代 後半期부터 国内的 經濟的 어려움과 아울러 高潮되기 始作한 反戰與論은 美国内의 政治的 霧圀氣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即, 學界와 言論界를 中心으로 한 소위 知識層들은 改革과 進歩主義를 내걸고 既存의 对内外政策 全般에 걸쳐 暴露와 高발로 徹底한 批判을 始作함으로써 保守勢力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 保守勢力에 대하여 한層 더 一擧를 加하게 된것은 워터게이트事件이 었다. 워터게이트事件은 바로 既存政治의 치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것으로 解釈되었던 것이다.

知識層을 中心으로 한 進歩主義의 파동은 結局 政治人들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 理由는 이들의 進歩主義가 道德性을 強하게 내세우고 있기때문에 政治人들은 스스로의 政治生命을 維持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應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카터의 大統領으로 當選은 바로 이와같은 政治霧圀氣에 의한 것이 다.

美国의 国内政治에 있어서 漸次로 팽배하게된 改革主義・進歩主義의 内容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說明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對外政策과 關聯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가지 特徵만을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둘기」(dove)의 立場이다. 이는 越南戰의 막바지에서 抬頭된 두가지 立場, 即 「매(hawk)」派와 「비둘기(dove)」派의 對立에 起因하는 것으로 敵에 대한 攻擧보다는 防禦와 共存으로 國際間的 平和維持를 強調하는 것이다. 따라서 敵들과의 和解와 關係改善, 그리고 이를 위하여 核擴散의 금지, 戰略武器의 除限등을 내세우게된다.

둘째, 새로운 孤立主義的인 傾向이다. 即, 外部에 대한 膨脹과 介入에 反對하고 國家의 一次的인 關心을 對內로 돌려 經濟와 社會를 安定시키려는 內向的利己主義를 나타내고 있다. 盟邦의 安保는 盟邦 스스로가 그 一次的인 責任을 진다고 하는 닉슨 獨트린은 바로 이와같은 點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째, 外部에 대한 美國의 影響力을 物理的인 힘에 依存하는 것에서 道德性으로 轉換하는 態度이다. 例컨데 人權外交, 道德外交가 바로 그것이며 이는 物理的인 힘의 면에서 베트남을 越等히 能可한 美國이 越南에서 敗戰한 經驗에 의한것이라고도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힘만 가지고는 세계를 支理할 수 없음을 美国은 뼈저리게 認識한 것이다.

네째, 对外接触 및 行動에 있어서 開放主義를 強調하는 傾向이다. 이는 従來의 美国의 外交가 秘密外交에 依存하여 全体国民의 利益에 어긋나는 特定勢力의 利益을 擁護한다던지 (例, ITT 事件), 美国 CIA의 弱少国 内政에의 간섭 등의 行政部의 独走를 可能케 하였다는 議회의 非難에 刺戟된 것이다. 實際로 对外政策의 樹立과 樹行에 있어서의 美議회의 役割과 比重은 従前に 比하여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以上과 같은 美国内の 現在の 政治雰囲氣가 美·中共關係에 關한 美国으로 하여금 대체로 中共에 接近하도록 만드는 作用을 하고 있는 것이다. 革新의 기수를 자처하는者들은 勿論이려니와 保守的인 立場에 있는 사람들로 中共과의 国交正常化의 時期와 方法에 있어서는 見解의 差異를 보이고는 있으나 關係改善을 해야 한다는 点에서는 多같이 同意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中共과의 国交樹立이 遲延되면 될수록 美·中共의 關係改善이 繼續해서 主要 이슈로서 政治人들間에 거론되게 되어 있다.

美国의 国内政治와 關聯해서 中共과의 關係改善이 推進될 가장 큰 可能性은 特히 카터大統領 자신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카터는

지난번 選舉에서 大統領에 出馬하면서 즉각적으로 中共과의 国交正
常化를 主要政策으로 提起하였으며 大統領에 當選된 後에도 이점을
繼續 強調해 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国交正常化를 具
体的으로 實踐에 못 옮기는 原因은 위에서 言及할 關係改善을 抑
制하는 要因들때문이지만, 카터가 大統領에 當選될 수 있었던 主要
理由가 大部分의 既成政治人들과는 달리 比較的 매우 良心的인 政
治人이라는 大衆에 대한 그의 이미지에 힘 입은바가 컸다고 할것
같으면 그로서는 이와같은 이미지를 維持하기 위해서도 選舉公約을
될수 있는한 實踐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카터가 1980 年에
있을 大統領選舉에서 再選되기 위한 戰略으로 그는 選舉公約을 實
踐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위해서도 大統領選舉以前에 對中共
国交正常化를 이룩하리라고 展望하는 사람들도 있다. ⑦

한편 中共으로서는 위에서 指摘한 美国内の 最近의 政治霧圀氣
특히 議회의 워터게이트事件 以後의 發言權強化에 着眼하여 헨리·
잭슨, 마이크·맨스필드, 제롬·제비츠, 휴·스콧, 에드워드·케네디等
美議회의 重鎮級議員들은 거의 다 초청하여 中共에 대한 好意的인
與論이 美政界에서 形成되도록 努力해 오고 있는 것이다.

中共側 要因

(가) 安保問題

7,000km 라는 世界 最長의 国境線으로 接해 있는 蘇聯으로 부터의 軍事的인 威脅은 中共으로서는 安保問題와 直結되고 있다. 이와같은 直接的인 威脅外에도 蘇聯은 「亜細亞集團安保体制」을 提議함으로써 東南亞에 있어서도 中共을 封鎖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에 대한 蘇聯의 軍事的壓力은 中共이 蘇聯에 굴복하지 않는 한 共產圈에 있어서 蘇聯의 主導權을 確立하기 위하여, 그리고 中蘇国境問題를 蘇聯側이 主張하는데로 妥結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繼續될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兵器에 있어서 越等히 뒤지고 있는 中共으로서 美国과 關係를 改善하여 美国으로 하여금 對蘇牽制에 重要한 役割을 担当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當然하다.

(나) 近代化에 必要한 西方의 協調

1975年 1月の 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周恩來에 의하여 提起된 今世紀內의 農業, 工業, 国防, 科學技術의 發展에 의한 經濟的近代化路綫은 現在 華国鋒体制에 의하여 主要施策으로 再確認되었다.

中共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이러한 目標를 達成할런지의 計劃에

대해서는 公表를 하지 않으므로서 알수는 없으나 이를 위하여서는 아무래도 西方国들로 부터 技術, 資材 및 플란트등을 導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特定品目に 있어서는 勿論 西方經濟圈을 主導하고 있는 美國의 協力을 求해야만 한다.

中蘇紛爭이라는 點을 떠나서도 中共이 蘇聯보다는 西方国들과 經濟 乃至 技術交流를 할 수 밖에 없는 理由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蘇聯의 産業技術의 水準은 特定分野에 있어서는 매우 발달되었지만 많은 分野에 있어서는 아직도 西方国들에 비하여 後進性을 못 면하고 있다는 點이며, 다른 理由는 蘇聯이 對外的으로 提示하고 있는 經濟技術交流의 條件들이 西方国家들의 그것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點이다. ⑧

2) 美·中共關係改善을 抑制할 要因

美·中共關係改善을 抑制할 要因들에 대하여도 便宜上 美國側要因과 中共側要因으로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美國側要因

(가) 台灣問題

美·中共關係改善을 兩國間의 國交正常化의 水準에까지 一致시

킨다고 할때 美国으로서는 우선 台湾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1972年 上海共同声明以後 中共은 美·中共国交正常화가
实现되지 않고 있는 主要原因을 美国이 上海共同声明의 精神을 实
踐하지 않는데 있음을 繼續해서 指摘하고 있으며 實際로 「修交三
原則」으로서 ① 美·台湾關係 断切 ② 美·台湾防衛条約의 废弃
③ 台湾駐屯 美軍事關係者들의 撤収를 具体的으로 明示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美国이 台湾을 포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問題들을 惹
起시킨다.

첫째, 日本과 韓國은 勿論이고 友邦들의 对美信賴度を 大幅 減少
시킬 것이다.

둘째, 台湾의 蘇聯과의 제휴可能性이다.

이런境遇 亞細亞에 있어서 힘의 均衡은 美国에 매우 不利한 方向
으로 轉換될 것이다.

셋째, 美国内에서 台湾과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經濟人들은 勿
論 親台湾政治勢力들에 의하여 커다란 政治的인슈로서 攻撃을 받게
될 것이다. 台湾의 포기는 大多数 台湾人의 生死問題와 直接 關聯
되기 때문에 특히 人權과 道德性을 내세우는 카터行政府로서는 치
명적인 批判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美·中 國交樹立으로 얻을 수 있는 利益이 이러한 對內
外的인 負擔을 相殺하고도 남을만큼 크지 않는한 美國은 台灣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 蘇聯과 和解의 必要性

이미 앞에서 言及한 三角敵對關係의 性格上 美國은 蘇聯에
대하여 牽制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中共에 接近하는데 너무 接近한
나머지 蘇聯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고 통제거리 自体를 오히려
流産시켜 버리는 結果를 가져온다면 對中共接近의 意味는 없어지고
말것이다. 따라서 對中共接近은 對蘇牽制와 協商에 가장 有利한
線에서 그쳐야 될 必要性을 美國으로서는 갖는다. 勿論 여기서
어느 程度가 가장 有利한 線인가를 決定하기란 容易치 않다. 또한
그 線을 決定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達成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理由는 前述한바대로 美國의 對中共政策은 蘇聯에 의하여 制約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確實한것은 같은 超強大國의 立場으로
서 美國의 對蘇政策은 對中共政策보다 큰 比重을 갖는다는 点일
것이다.

美國과 蘇聯은 現在 軍事的優位를 에워싼 軍備競爭을 함으로써
彼此 莫大한 財政的 出血을 하고 있다. ⑨ 無限定한 軍備競爭을

被此間에 利롭지 못하다는 것을 兩者는 알기때문에 戰略武器制限協
定等과 같은 軍備制限交渉을 싫건 좋건 兩者間에 앞으로 繼續해서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東西間의 緊張緩和를 美国
이나 蘇聯이나 다같이 가장 重要한 對外政策으로 표방하는 理由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美国으로서는 必要 以上으로 中共에 接近하여 美国과 中
共이 野合하는듯한 의구심을 蘇聯에게 주어 東西의 緊張緩和에 차
질을 가져 온다면 中共으로 하여금 蘇聯에 대하여 好轉的인 態
도를 갖게 하여 中蘇關係가 아주 惡化되는것 같은 事態는 決코 願
치 않을 것이다.

(나) 中蘇紛爭의 持續

1972年 美·中共關係의 改善은 1950年代末부터 露呈된 中
蘇紛爭때문에 可能하였지만 한편 거의 自動的으로 持續되는 中蘇紛
爭은 逆說的으로 美·中共間의 急進的인 關係改善을 오히려 막는
作用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即, 이것은 現在 狀態의 中·蘇
對立이 持續하는限 美·中共關係에서 現在程度의 協助體制는 그대로
維持되겠지만 根本的인 妥結은 역시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왜냐
하면 三角敵對關係의 性質上 美国으로서는 中·蘇가 和解하는것을

願치 않기 때문에 中共이 蘇聯과 和解하려는 움직임을 보일때 이를 막기 위해서 中共에 양보를 하면서도 接近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經過로 볼때 中·蘇關係는 毛沢東의 死亡後 蘇聯으로 부터 繼統的인 和解의 제스추어에도 不拘하고 쉽사리 改善되지 않고 있으며 中·蘇對立은 앞으로도 상당期間동안 그대로 持續될 것이 分明하다. ⑩ 특히 国境問題와 뿌리깊은 相互不信은 中·蘇和解를 어렵게 만드는 主要要因中에서도 代表的인 것이다. ⑪

따라서 中·蘇紛爭이 自動的으로 持續되는限 美國으로서는 서두르지 않고 對中共接近에 여유를 갖으려 할 것이다.

(라) 超強大國으로서의 関心の 拡散

글로벌 파워 (global power) 로서의 美國은 아직 地域勢力 (regional power) 의 範圍에 머무르고 있는 中共보다 自然히 그 関心이 拡散되기 마련이다. 即 世界戰略의 一環으로 中共問題를 處理하여야 한데에 美國은 역시 制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美·中共關係改善에 대해서 中共이 느끼는 程度에 비하여 美國이 느끼는 것은 大体로 그 濃度가 薄다고 보여진다. 即 다른 地域의 問題들때문에 美國은 中共問題를 뒤로 넘기게 되는 境遇도 많을 것이다. ⑫

中共側要因

(가) 台灣問題

台灣問題와 關聯된 美國側의 立場은 前述하였거니와 事態의 變化에 따라 台灣問題가 未解決狀態인채 로라도 美國과의 關係正常化를 할 必要를 中共이 느낄 境遇, 지금까지의 主張때문에 中共의 行動은 오히려 拘束되게 될것이다. 台灣問題가 未解決인채로 中共이 美國과 國交正常化를 해야될 可能性은 實際로 完全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台灣問題는 美國이 台灣을 포기한다고해서 自動的으로 解決되는것은 아니고 終局的으로 中共이 台灣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出血을 감수해야 되기때문에 어차피 쉽사리 解決될 問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하튼 現在로서는 中共으로서는 台灣에 대한 美國의 포기조치가 취해지지 않는限 國交正常化를 中共側에서 먼저 拳論키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 이데올로기

美·中共關係改善을 抑制하는 두번째 要因은 美·中共간의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差異이다. 中共에 의하면 美國은 蘇聯과 마찬가지로 霸權主義를 추구하는 帝國主義勢力이며 이들 兩霸權勢力은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利害關係가 一致하면 언제든지

野合해서 世界를 分轄하려 한다고 美国에 대해서 蘇聯 못지 않게 경계하고 不信하고 있는 것이다. ⑬

美·中共간의 政治的 理念上的 差異는 世界를 보는 視角에만 影響을 주는 것이 아니라 兩國간의 經濟交流를 制限하는데에도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中共의 對外經濟交流의 基調는 “自力更生”이라는 이른바 “經濟的獨立”이기 때문에 外國借款에 의한 國內經濟의 開發을 거부하고 輸入은 輸出能力에 마춤으로써 對外貿易依存度도 다른 共產國들에 비하여 훨씬 낮다. ⑭

對美交易量은 닉슨의 中共訪問以後 急激히 增加되었다고는 하지만 1975年의 경우 고작 4億6千萬弗(總對外交易量의 3.3%)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日本과의 交易量 38億弗(總對外交易量의 26.9%)에 비하면 8分の1에도 못 미치는 額數이다. ⑮ 1976년에는 오히려 3億3千萬弗로 減小되었다.

앞에서 言及한바대로 現中共체제의 經濟近代化政策때문에 對美交易量은 增加할 것이 豫想되지만 위에서 指摘한 自力更生の 原則때문에 얼마나 크게 增大될런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추측컨대 增大되더라도 그 速度는 서서히 增大되는 形態를 띠울것이다.

(다) 政權의 不安定

昨年 8 月の 中共党 11 全大会를 통하여 1976 年 10 月 政變以後 미루어왔던 党要職들에 대한 人選을 마침으로서 中共은 毛沢東계승 체제를 華国鋒을 中心으로 일단은 樹立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새로운 權力体制가 이대로 安定을 維持해 가리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은 時期尚早인 감이 없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問題點은 華와 鄧小平의 關係일 것이다. 即, 華가 그동안 党主席의 자리를 장악하여 온 既得權때문에 스스로의 權力가반을 구축하여 왔다. 하더라도 経路에 있어서 越等히 앞서고 党·軍·行政府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鄧을 과연 無難히 다룰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다. ⑩

이처럼 權力体制가 不安定한 狀態에서 对蘇和解나 对美国交樹立과 같은 对外政策上的 主要變更을 한다는 것은 華国鋒으로서도 그것이 政敵들에게 挑戰의 구실을 提供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망서리게 될 것이다. ⑪

3) 兩要因들의 比較에 의한 美·中共關係展望

지금부터는 以上에서 分離하여 分析한 美·中共關係改善을 推進할

要因들과 抑制할 要因들을 綜合하여 比較함으로써 앞으로의 美·中 關係의 向方을 豫測하고자 한다.

우선 關係改善을 推進할 要因들부터 再檢討해 보면 美國側要因보다는 中共側要因이 더 強한것 같다. 이것은 結局 中共側이 더 關係改善을 希望함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推定이 나오게 되는 根拠는 前章에서 指摘한 對外政策目標의 順位와 關聯시각 불때 中共側要因은 安保와 經濟發展에 直接 連結되었기 때문이다.

美國의 對蘇牽制라는 것은 蘇聯과의 對外影響力競爭에 있어서의 牽制이지 美國이 蘇聯에 의하여 領土保全이나 國民生命의 維持에 있어 威脅을 느끼는것은 아니다. 美國은 中共의 도움에 의하지 않고 또한 軍事的方法이 아닌 經濟的方法에 의해서도 蘇聯에 대하여 상당한 壓力을 加할 수 있는 것이다. ⑩

또한 對中共交易에 있어서도 美國은 長期的인 眼目에서라면 모르겠지만 關係改善에 의하여 당장에 커다란 利益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主原因은 前述한바대로 中共의 經濟的獨立이라는 交易原則, 經濟構造 그리고 國民들의 낮은 消費性向에 있다.

한편 中共으로서의 對蘇牽制라는것은 單純히 對外影響力競爭이 아니라 自國의 安保問題와 關聯된 것이며 最近에도 滿洲地方 特히 內蒙古自治區와 하르빈地域에 核防禦障地構築을 繼續하고 있음을 外

信記者들이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事項인 것이다. ⑬

美·中共關係改善을 抑制할 要因面에서 보면 美國과 中共 兩者中 어느 쪽에 要因이 더 密度가 큰지 判定키 어렵다고 하겠다. 美國 側要因을 보면 아무래도 台灣問題와 蘇聯을 極도로 자극하지 말아야 할 要因이 크며 中共 스스로가 蘇聯과 對立을 繼續하는 限 界이 美·中共國交正常化를 서두를 必要가 없을 것이다.

한편 中共側要因을 보면 台灣問題와 政權의 不安定이 主要要因일 것이다. 理念上的 問題는 政權만 安定된다면 東洋의 權威主義的 政治文化때문에 最高政策決定者의 意思에 大衆은 그대로 따르기 마련이므로 별로 問題가 안될런지도 모른다. 이점은 美國의 國內政治가 行政府와 議會의 相互牽制, 輿論의 作用等에 의하여 對外政策 決定上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點과 比較할때 中共의 政策決定者들이 갖는 利點이 될수도 있다.

다음에 關係改善을 推進할 要因과 抑制할 要因을 서로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假定을 잠정적이나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關係改善을 抑制할 要因들이, 推進할 要因들을 完全히 壓倒할 程度는 아니지만 現在에 있어서 6對4 程度로 強하므로 (勿論 이것은 序論에서 밝힌바처럼 어디까지나 느낌에 의한 것임) 새로운 要因의 出現이나 事態의 變化가 없는限 次期美國大統領選舉때

까지는 美·中共国交正常화가 이루어 지리라는 樂觀論은 認定키 어렵다는 것이다. 美·中共關係가 真正한 意味에서 正常化되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10年은 要할것이 豫想된다.

둘째 그렇다고해서 美·中共關係가 現在보다 惡化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美國과 中共은 多같이 적어도 惡化되는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

세째, 關係改善協商에 있어서 中共은 美國에 比하여 越等히 負擔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不利한 位置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結局 国交正常化의 早期實現을 위해서는 中共이 現在의 主張에서 양보를 해야함을 意味한다. 例컨데 台灣問題에 있어서 法的인 關係 (de jure relations) 는 단절하더라도 實質的인 關係 (de facto relations) 는 美國이 繼續 維持하는것을 認定한다던지 經濟交流에 있어서 美國이 要求하는것을 大幅받아드리는것 같은 것이다.

以上과같은 推定을 土臺로할때 그러면 앞으로의 美·中共關係는 과연 어떠한 樣相으로 進展될 것인가?

美·中共国交正常化에 관한한 지금까지 美國에서 學論되고 있고 想定할 수 있는 方案은 대략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는 「밴스필드方案」으로서 그內容은 中共側이 내거는 「修交

三原則」과 一致한다. 即 台灣과의 外交關係의 단절, 美·台灣相互 防衛條約의 廢棄, 台灣으로 부터의 美事關係者의 完全撤收를 先行함 으로써 中共과 國交樹立을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잭슨方案」으로서 中共과는 大使館을 設置하고 台灣과는 連絡事務所를 設置하되 台灣과의 防衛條約關係는 繼續維持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日本式方案」이다. 中共은 日本과의 國交樹立에 있어서도 前述한 修交三原則을 主張한바 다만 第3原則에 있어서는 日本과 台灣은 防衛條約을 締結하고있지 않으므로 日本·台灣平和條約의 廢棄를 主張했었다. 이와같은 中共側의 三原則에 대하여 日本은 中共側의 체면을 損傷하지 않도록 處理함으로써 北京과의 大使館樹立에 成功했던 것이다. 即 1972年9月20日 周恩來·田中共同聲明에서 日本은 “中華人民共和國政府가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the sole legal government of China)”라는 第1原則은 認定(acknowledged)하고 (共同聲明2項), “台灣은 中華人民共和國領土의 떼어 놓을 수 없는 한 部分(Taiwan is an inalienable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第2原則에 대해서는 이를 認定한다는 말 대신 “理解”하고(understands)

“尊重”한다 (respects)고 하였고, (共同声明 3 項), “ 소위 말하는 日本・台湾平和条約은 不法이며 無効이며 廢棄되어야 한다. (The so-called “Japan-Taiwan Peace Treaty is illegal, void and should be denounced) ”라는 第 3 原則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第 3 原則에 言及하지 않은 대신 日本은 周・田中共同声明 直後 大平外相으로 하여금 中華人民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에 따라 “日本과 中華民國과의 平和条約은 存在의 기반을 喪失하였으며 効力이 停止된 것으로 看做한다. (the Treaty of Peac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China has lost the basis for existence and is considered to have ceased to be effective) ”는 口頭声明만을 發表케 한 것이다. ㉔ 第 3 原則을 共同声明에서 言及하지 않고도 中・日国交樹立이 可能했던 것은 日本이 国内政治와 關聯, 다시 말해서 日本内 親台湾勢力의 強力한 反발때문에 이를 共同声明에 包含시키기는 매우 困難하다고 中共側을 說得, 그 대신 外相의 口頭声明과 日・中共平和友互条約을 推進한다는 것으로 中共側의 諒解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如何間 第 3 原則을 共同声明에 公式적으로 包含시키지 않은 것은 日本으로서는 重大한 意味를 지닌다. 왜냐하면 바로 周・田中声明으로 台湾과의 公式的 国交는 断切

되었다 하더라도 그 以後에도 從前에 못지않게 實質적으로는 台灣과 關係를 繼續維持해올 수 있는 主要 要因의 하나가 바로 이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以上과같은 美·中共國交正常化 方案中 現在로서 美國이 願하는 方案은 잭슨方案일 것이고 中共으로서는 맨스필드方案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兩者間에 接近할 수 있는 方案은 日本式方案에 類似한것이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日本式方案도 美·中共間에 合意를 보기에는 상당한 時間이 걸릴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4~5年은 걸리지 않을까 豫想되는 것이다. 이는 곧 다음번 美國大統領選舉가 지난後가 된다.

勿論 中共으로서는 次期 美大統領選舉를 겨냥해서 中共側에 有利한 方向으로 美·中共關係가 妥結되도록 工作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앞에서 考察했듯이 美·中共關係正常化에 부대되는 問題가 너무나 많고 美國으로서의 利害得失의 計算이 分明치 않기 때문에 카터 自身이 中共問題로 因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기가 싫어서 選舉前 早期妥結을 오히려 기피할 可能性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美·中共關係는 당분간 繼續 당겼다 놓았다하는 形態와 그러면서도 繼續 서서히 改善되어 가는 樣相을 보일것이다.

三. 美·中共關係의 進展이 韓半島問題에 미치는 影響

美·中共關係의 進展을 당분간 繼續 당겼다 놔다하는 形態를 取하면서 그러면서도 惡化되지는 않고 서로간의 接觸과 交流는 增加되어 서서히 改善되어가는 樣相을 띠우게 된다고 할때, 極東에 있어서 美·中·蘇 三強의 相互牽制체제도 別變化없이 그대로 存続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周辺情勢는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基本的으로 是 繼續 추구할것으로 보인다.

우선 美國으로서는 設령 豫定대로 駐韓美軍을 撤収시킨다고 할지라도 空軍力을 強化함으로써 對蘇牽制勢力으로서의 美國의 役割에 變化가 없음을 中共에게 認識시키면서 韓半島에서의 平和維持가 美 中共關係改善에 繼續 必要함을 強調할 것이다.

이와같은 美國의 主張을 中共으로서는 그대로 示認할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韓半島에서의 狀況變化는 對蘇牽制를 위해 推進해온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의 武力南侵挑發을 고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中共은 蘇聯과의 對北韓 影響力競爭때문에 北韓에 대해서는 繼續해서 外交的後見者의 役割을 할 것이다.

例컨대 美·中共간의 接觸이 繼續 增加함에 따라 北韓은 中共에

대하여 北韓이 主張하는 「朝・美平和協定」締結에 美國이 應하도록
중용해 줄것을 要請하게 될것이고 中共으로서는 이와같은 要請에
외면만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駐韓美軍의 撤収에 따른 韓國의 軍事力補強에 對應하
기 위하여 北韓이 蘇聯에 더욱 接近할때 中共은 北韓의 對蘇偏向
을 막기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軍事的經濟的 援助도 提供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점은 韓半島平和定着에 저해가되는 要因이 될것
이다.

美國과 關係를 改善해야 할 必要성과 北韓의 對蘇偏向을 抑制해야
할 必要성은 中共의 對北韓政策에 있어서 繼續 난처한 立場에 놓
이게 만들 것이다. 例컨데 駐韓陸軍의 撤収뿐만 아니라 海空軍의
撤収도 主張하는 北韓의 要求에 대하여 中共은 公式的으로는 이를
지지안할수가 없는 것이며 이는 駐韓美空軍이 蘇聯의 南下政策을
抑制하는 役割의 면에서 볼때는 中共의 利益에 配置되는 것이다.

駐韓美軍의 撤収에 따른 韓半島에서의 平和維持를 위한 美國의
政治的 外交的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即 이른바 當事
者會談이나 四強의 南北韓交叉承認과 같은 協商에 있어서 北韓이
應하지 않는 限 中共으로서는 美國의 提議에 應하기 어렵다. 이러
한 點들은 昨年가을 맨스 美國務長官의 北京訪問에서도 그대로 나

타난바 있다.

韓半島問題解決方案에 관해서도 中共은 "韓半島問題는 韓半島內部問題이며 韓人들끼리 解決해야 될 問題"라는 지금까지의 主張을 繼續할 것이다. 이와같은 主張을 함으로써 中共은 北韓에 대해서는 中共이 繼續 北韓의 統一方案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北韓의 武力南侵에 中共이 支援할 수 없다는 의사를 間接적으로 示唆하는 것이 되며, 美國에 대해서는 美國이 要求하는 韓半島現狀固定을 위한 中共의 北韓에 對한 壓力이나 介入을 회피하는 效果를 갖게 된다. 그러나 中共의 이와같은 主張은 北韓으로 하여금 韓國의 內部的混亂을 惹起시키는데 注力하게 만드는 作用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內의 混亂은 內部問題이면서도 北韓의 赤化統一戰略에 一致되기 때문이다.

한편 韓國에 대해서는 北韓의 對蘇偏向可能性을 意識하는 限 北韓이 반발할 韓國과의 直接接觸이나 關係改善은 繼續회피할 것임이 틀림이 없다.

美·中共과의 關係가 急速度로 改善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때 (實際에 있어서 이는 蘇聯이 美·中共關係改善을 積極 방해한 原因이 크겠지만) 蘇聯 亦是 韓半島問題에 對하여 從前과 別로 變함이 없는 政策을 取하게 될 것이다. 即 美國과 競爭을 하면서도 美

국과의 關係를 改善해야만 할 蘇聯으로서는 美·中共이 野合하지 않는限 亞細亞에 있어서의 現狀維持政策을 繼續 취할 道리밖에 없는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現狀固定化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共이 北韓의 對蘇偏向可能性을 意識하여 北韓에 援助하듯이 蘇聯도 中共의 對北韓 影響力을 牽制키 위하여 軍事經濟面에서 北韓에 대한 後援者的 役割을 繼續할 것이다. 勿論 - 蘇聯으로서는 北韓에 대한 軍事的支援이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威脅하지 않는 限度라는 點을 前提하겠지만 이와같은 援助가 韓半島平和定着에 遂行하는 不安定要因이 되기도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다.

蘇聯은 美·中共의 接近을 繼續 경계하기 때문에 韓半島問題解決에 있어서 美國과 中共이 主導하는 方案을 北韓이 受諾하지 않도록 北韓에 대하여 繼續 壓力을 加하고 한편으로는 회유도 할 것이다. 例컨데 韓半島問題解決을 위한 美·中共·北韓·南韓의 四者會談을 蘇聯은 積極 反對하고 北韓으로 하여금 이에 不応하도록 努力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蘇聯 亦是 中共과 마찬가지로 美國이 直接 北韓에 接觸하는것은 反對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即 北韓이 主張하는 「朝·美平和協定」締結을 지지하고 中共과 競爭的으로 美國에 대하여 이를 形式上이나마 容용할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蘇聯은 中共과의 對北韓影響力 競争에 있어서 蘇聯이 가지고 있는 經濟的 軍事的 優位性 때문에 어느때고 壓到할 수 있다는 確信, 蘇海軍의 東南亞 및 印度洋進出에 있어서 갖는 大韓海峽의 有用性, 그리고 中共에 比하여 훨씬 實用主義的인 蘇聯의 對外政策等 때문에 韓國에 대해서 中共보다는 보다 緩和的인 態度를 보이겠지만 北韓을 意識하는 限 韓國과의 政治的인 接觸이나 關係改善은 회피할 것이다.

이처럼 三強相互牽制에 의하여 韓半島問題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現狀維持의 方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美·中共關係가 前述한바대로 時期와 狀況에 따라 戰略的인 流動性을 보임에 따라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민감히 움직일 蘇聯과 日本때문에 南北韓關係는 軍事競争못지 않게 치열한 政治戰과 外交戰의 局面으로 접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四. 結 論

지금까지 本稿는 美·中共關係는 本質적으로 美·中蘇 三角敵對關係의 一環이기 때문에 美國과 中共이 진정한 意味에서 國交正常化를 이루기는 어렵게 되었다는點, 더우기 美國은 힘에 있어서나 立場에 있어서 中共보다 훨씬 有利한 位置에 있기때문에 現在 中共이 내걸고 있는 修交三原則을 즉각적으로 받아 들이면서까지 關係改善을 서두를 必要를 느끼고있지않다는 點을 兩側의 關係改善을 推進할 要因과 抑制할 要因들을 比較하면서 提示하였고, 따라서 說令 日本式方案으로 國交正常化段階에 들어가더라도 4~5年은 걸리겠지만 基本的으로 美·中共關係는 最小限 惡化는 防止되는 線에서 時期에 따라 戰略的 流動性을 나타내면서 서서히 改善되어 갈것이라고 展望하였다. 따라서 本稿는 韓半島周邊情勢는 당분간 별로 變動이 없을 것으로 豫測하면서도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는 政治戰이 軍事力競爭보다 오히려 부각될것을 指摘한 것이다.

美·中共關係의 進展에 따른 南北韓關係의 政治戰에 있어 우리의 安保上 가장 問題가 되는것은 美國과 北韓間의 接觸可能性이다.

美·北韓間의 接觸은 美國이 直接 北韓에 對하여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協調하도록 宗용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준다는 點 閉鎖

的이며 好戰的인 北韓의 支配層 및 社會에 대하여 美國이라는 異質的인 要素가 침투됨으로써 다소 온건한 것으로 變質시킬 수 있다는 點 등을 들어 우리에게 否定的인 機能만을 갖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수도 있다는 樂觀論的 見解도 있으나 이는 長期的인 면에서 거둘 수 있는 效果이지 적어도 現時點에 있어서는 得보다 失이 크다고 判斷된다.

이미 指摘하였듯이 美·中共關係의 進展에도 不拘하고 中共과 蘇聯은 繼續 우리와의 關係改善을 회피하는 狀況에서 美國이 北韓과 關係를 改善한다는 것은 韓國을 孤立시키는 것이되며 이는 國際的으로 우리의 地위를 격하 시키는 것이 될것이다. 또한 國內的으로 心理的 動요를 가져오는 副作用을 갖는다. 실제로 北韓의 對美平和條約 提議는 이러한 效果를 노린 것이다.

지금까지 美國은 韓國의 參與없이 韓半島問題解決을 위한 어떠한 國際協商에도 應하지 않을 것이며 北韓과의 關係改善도 行하지 않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美國이 이러한 立場을 維持할런지는 의문이다.

美·中共關係의 進展自体에 있어서 우리는 이에 의하여 影響은 받으나 우리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有利하도록 直接 影響을 줄 수 있는 餘地란 극히 除限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間接的

인 方法을 講究하는 道리밖에 없는데 가장 實効的인 方法은 우리
自體의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文化的 實力을 北韓에 훨씬 앞서도
록 키워 國際社會에 있어서 우리 의 地位를 實質的으로 높히는 것
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三角敵對關係에 있어서 가장 有利한
位置에 있는 美國과의 關係를 보다 緊密히하여 美國으로 하여금
對中共關係協商에 있어서 韓國의 立場을 항상 考慮토록 만드는 것
이 最善의 方法일 것이다. 이렇게 붙때 그동안 경직되온 韓美關
係를 早速히 妥結하고 좀 더 참신하며 友好的인 韓美유대關係를
樹立하는것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겠다.

註

- 1) 拙稿 「卡特行政政府의 極東政策과 中·蘇關係」 「国会報」
1977年7, 8月号
- 2) 拙稿 「駐韓美軍의 減縮撤収에 따른 中·蘇의 對韓半島政策展望」 「統一政策」 第3卷 第3号, p.96
- 3) 이와같은 點은 美國의 過重한 財政的負擔, 組織上의 問題, 加入國들의 消極的인 態度 등으로 因하여 美國內에서 NATO의 存在理由에 대하여 近來에 와서 論難이 많음에도 不拘하고 昨年 5月 카터大統領이 런던訪問時에 NATO는 아직도 「美國의 對外政策의 核心」이라고 稱명한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Bernard Weinraub, 「The Question Is Now Serious: Is NATO Really Necessary?」 The New York Times, Nov. 13, 1977, Section 4, p.2
- 4) The Military Balance 1975-76에 의하면 蘇聯은 東歐地域에 31個師團과 9,000台的 탱크를 파견하고 있는 反面에 中·蘇國境에는 43個師團과 11,000台的 탱크를 配置하고 있다.
- 5) 「한국일보」 1977. 4.14
- 6) 美·中共關係改善 初期부터 이 主張을 強力히 내걸고 있는

人物로서는 마이크 맨스필드 上院議員을 들 수 있다.

- 7) 金達中, "美·中共 外交正常化問題" 「中国問題」(漢陽大學校 中国問題研究所刊) vol.2. № 2 (1977年8月), p.182.
- 8) Daniel Yergin, "Politics and Soviet-American Trade: The Three Questions," "Foreign Affairs," April 1977, pp. 520ff.
- 9) 蘇聯과의 軍備競争의 根本原因을 蘇聯의 膨脹주의에만 돌릴 수 없는 理由, 다시 말해서 美国側의 責任에 대해서는 G.B. Kistiakowsky 의 最近論文 "The Arms Race: Is Paranoia Necessary for Security," "The New Times Magazine," Nov. 27, 1977에 示唆하는 바가 많다.
- 10) 中·蘇紛爭이 現在狀態로 持續될 수 밖에 없는 要因들에 대해서는 前掲論文 "駐韓美軍의 減縮撤収에 따른 中蘇의 韓半島政策展望," pp.98-100을 参照할것.
- 11) 例컨데 昨年 9月 밴스美国務長官의 北京訪問時 国交正常化에 대한 美国側의 態度가 미온적이라는 鄧小平의 정책에 대하여 밴스는 當時 파나마運河問題로 美議會에서 論難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美·中共關係改善問題를 添加하여 問題를 더욱 複雜하게 만들기는 困難하다고 美国内政治와 關聯하여 中共側

의 양해를 求하려 했다는 說도 있다.

- 12) Victor Zorza "In Peking, Veiled Voices For Detente With Russia," The Washington Post, Jan, 4, 1978
- 13) 朴春三, "中共의 貿易메카니즘과 對外貿易" 「中国問題」 vol 2, No 2 pp.89-90
- 14) Ibid., p.115
- 15) 심지어 11全大會를 통하여 鄧이 再復權되기 이전에도 鄧에 의하여 華는 언제든지 權力의 中心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豫測이 中共 觀測者간에 있었다. 그 例로 Mineo Nakajima "Contradictions of the Hua Kuo-feng's Regime: China Swayed by the Shadow of Teng Hsiao-p'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iangular Relations of Mainland China,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Report)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77), pp.57-69
- 16) 中共의 權力構造가 아직 安定되지 못한 証拠로서 1977年 가을에 열릴 豫定이었던 全國人民代表大會가 연기된것, 天安門事件 鎮壓의 有功者였던 北京市長 吳德, 北京軍區司令官 陳錫聯에 대한 北京大學의 非難大字報等을 指摘할 수 있다. The New

York Times, Oct. 26, 1977, p.16 " Unity Seems Elusive for
Peking's Leader."

- 17) 例컨데 1974年 美国은 유대인들의 自由出國을 許容치 않는限 蘇聯에
대하여 最惠国待遇를 禁止한다는 貿易改正案 (The Trade Reform Act
of 1974) 을 採択하였는데 現在 유대인들의 蘇聯으로 부터의 出國數
는 每月 2000名線으로 繼續 增加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Oct. 27, 1977. p.3
- 18) The New York Times, Oct 25, 1977. p.12
- 19) James W. Morley, "The Search for a Normalization Formul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iangular Relations of Mainland
China,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op.cit, pp.154-56

